

# 무안 기업도시 개발자금 2800억 승인

군의회, 산업용지 분양 보증 안건 의결

한·중산단개발 내년 하반기 본격 착수

'무안 기업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2800억원 규모의 자금확보 방안이 무안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중산단 개발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무안군의회는 26일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무안군이 요청한 한·중 미래도시개발부의 금융자금조달(PF)을 위한 신용보증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기업도시 개발 시행사인 한·중 미래도시개발부의 총 차입

액 5120억원 중 1차로 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2800억원을 금리 연 5.9%로 차입하는 것을 무안군이 보증하는 것을 끝으로 하고 있다.

보증은 2015년으로 예정된 산단 준공후 4년이 지난 2019년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군이 매입을 확약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체부보증이 자칫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무안군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산업용지 분양이 낙관적이어서 우려하는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9월 국토 해양부에 제출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보상절차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군민들이 의회에 난입해 공무원을 폭행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 불법사나운 광경이 연출됐다.

무안군 박모(58) 민원실장은 복도에서 민주통합당 무안·신안 부위원장인 오모(70)씨와 임모(65)씨가 휴두를 주며 계란세례에 얼굴을 맞아 목포 A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중이다.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기다리던

김모 부의장과 의원 2명도 계란 투척을 받았다.

이들의 군의회 난동은 군정에 대한 순수성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적 갈등의 표출로 알려지면서 과장이 고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 난동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사전 모임을 하고 조직적인 반대를 결의했다는 후문이 있다"면서 "군정에 정치적 배경이 개입돼 아쉬울 때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산단은 당초 17.7㎢ 규모로 추진됐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우선 5㎢로 축소해 현재 각 부처를 거쳐 최종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목포시 임성 택지개발 본격 추진

188만7000㎡ 4257억원 투입 내년 지구지정 2016년 완공

목포시는 내년부터 임성지구 택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임성지구는 지난 2000년 전남도 마스터플랜에 2차 사업지구로 선정, 무안군과 목포시가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안군 지역 개발을 위임받

은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등 도내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개발 여력이 없어 공동개발을 포기해 목포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사업비 4257억원을 들여 임성지구 일대 188만7000㎡(57만평)를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임성지구의 개발방식은 시와 민간업체가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 편입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일부 불가)

피한 토지는 매입)의 '제3섹터 환지방식'으로 바꿔 추진키로 했다.

특히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투자비인 토지보상비 2453억원이 대폭 감소될 수 있어 총사업비가 2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이 보장되고, 사업이 완료 후에는 지가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늘어나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

## 신안교육청 섬 학생 도시문화 체험 학습

소년소녀 가장 10명 초청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상옥)은 최근 관내 섬지역 섬드리 결연학생(소년소녀 학생가장) 10명을 초청해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결연학생들은 신안 교육장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과 관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목포문화예술회관 전시회 및 영화관람 등 문화행사를 관람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업상담은 물론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신안교육지원청은 결연학생 10명에게 어학학습용 MP3를 선물하



며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학업에 전념해 주제를 당부했다.

신안교육청은 이번 행사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교육장 취임시 받은 축하 화분을 매각해 마련한 것

으로 알려졌다.

문상옥 교육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을 딛지 않고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섬지역 학생들을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 광양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 준공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장애인 전용체육관(사진)이 광양에 건립됐다.

광양시는 26일 장애인 체육관(광양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시는 국민체육 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29억원을 지원받아 총 공사비 49억800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9285㎡·건축 면적 2275㎡(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했다.

체육관내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실(헬스장), 시각장애인 탐구장, 옥외 놀이터 등 시설을 갖췄다. 특히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관 관련 시설 전체를 지상 1층에 배치했다. 광양시는 내년 1월초 장애인 체육관을 임



시 개장해 체육관 대관업무 등 체육관을 개방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체육관 시설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물론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재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체육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한 스포츠 명품도시로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

## 담양 죽녹원 '관광대박'

작년 121만명 이어 올 127만명 찾아 입장료 수입만 35억원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죽녹원에 올해 127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121만1600여명의 관광객이 죽녹원을 다녀간 대 이어 올해 지난해 말 기준 127만34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1만명 입장료 수입만 보더라도 2010년 18억5800여만 원을 벌어들인데 이어 올해 11월말까지 17억3700여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달성했다.

단일 관광지에서 2년 연속 입장료 수입만으로 연 18억여원을 벌어들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임을 입증했다.

또한 죽녹원과 연계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과 소나무 등 주요 관광명소의 유명세와 함께 대통령과 떡갈비, 국수집 등 담양 시내 음식점과 숙박소가 호황을 누리는 등 죽녹원이 지역경제 견인 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죽녹원의 성공에 힘입어 담양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 역시 상승하고 있다.

군은 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숲맑은 쌀' 등 농산물을 고정 납품하는 한편 서울 노원·

송파·성북구 등 전국 500개소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등에 급식자재로 납품하는 성과를 이뤘다.

담양군 관계자는 "버려진 대나무밭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황금밭으로 탈바꿈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관광객이 죽녹원 '운수대통길'을 걸으면서 새해 소원을 빙기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개장한 담양 죽녹원은 '운수대통길'을 비롯해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죽마고우길 ▲죽마의 샛길 등 8개의 테마 산책로와 대나무 절자 등 쉼터, '포토존' 등을 갖췄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담양 죽녹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설경을 감상하며 죽림욕을 즐기고 있다.

## 세 알 굴

### "현장위주·주민 중심 치안행정"

#### 안동주 해남경찰서장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동시에

에 현장위주·주민 중심의 치안행

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안동주(56) 해남경찰서장은 "주민을 최우선으로 조했습니다.

장흥 출신인 안 서장은 지난 1977년 순경으로 경찰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광주경찰청 청문감사관, 수사과장, 완도경찰서장, 고

흥경찰서장, 전남경찰청 경비과 신뢰로, 동료간에는 존경과

애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흥 출신인 안 서장은 지난

로 멋진 조직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흥 출신인 안 서장은 지난 1977년 순경으로 경찰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광주경찰청 청문감사관, 수사과장, 완도경찰서장, 고

흥경찰서장, 전남경찰청 경비과 신뢰로, 동료간에는 존경과

애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흥 출신인 안 서장은 지난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가은 부동산

### 대인동삼일부동산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나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 오피스텔 상가

●시청앞 오피스텔상가(1층) 분양가 이하 금액 1,174㎡.

매매가 상담후 결정. 분할매각 가능 합니다.

### 투자 및 사업용 토지.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4,260㎡. 제2종일반주거역.

35m 계획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10만원.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앞 1,117㎡. 제2종일반주거역.

매매가 3.3㎡당 300만원.

●광산구 동지로 1000번지 일정 1층일반주거역. 629㎡.

3.3㎡당 95만원.

●(금마)서구 회정동 터미널 뒷편 868㎡. 일반상업지역.

3.3㎡당 280만원. 공시지가는 3.3㎡당 325만원.

●서구 치평동(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한국은행 뒷편 990㎡.

3.3㎡당 590만원.

●서구 세하동 동화마을 부근. 2차선 도로접함.

1,035㎡(313평)

(도로 77평포함). 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사무실·기타 적합

●동구 소태동 대야아파트 부근. 접종지 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구된 국유지 구역 약 70평 별도 이용 가능. 전문식당적지.(보리밥·흑염소·순두부·등).

●사업용(아파트·도시형주택·판매시설·기타)

대형토지 매각 매입 전문업소.

010-3616-8698. 062-233-2222

010-3616-8698. 062-233-2222

</